

Uncommon Women

Uncommon Women



흔하지 않은 여성들



Context

Before Workshop & Project, Start the Way

April, We can do everything

May, Dreams come true

June, Sulju go to Singapore

-Sulju's Episode 1. Singapore, One more family

-Sulju's Episode 2. With local Singaporean sisters

July, Focus on work everyday

Aug, Joey go to Singapore

-Joey's Episode 1. With Ajin

-Joey's Episode 2. Feminist

Sep, Run Cry Music

Oct, Can we be safe?

Nov, Have a new dream

목차

워크숍 & 프로젝트 전, 시작의 물꼬를 틀다

사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월, 삼삼을 현실로 만들다

유월, 설주 싱가포르에 가다

- 설주의 에피소드 1. 싱가포르, 또 하나의 가족

- 설주의 에피소드 2. 싱가포르 로컬 언니들과 함께

칠월, 매일 작업에 몰두하다

팔월, 조이 대한민국에 가다

- 조이의 에피소드 1. 왜 안되겠어?

- 조이의 에피소드 2. 페미니스트

구월, 달리고 울고 들어라

시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십일월,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Before Workshop & Project, Start the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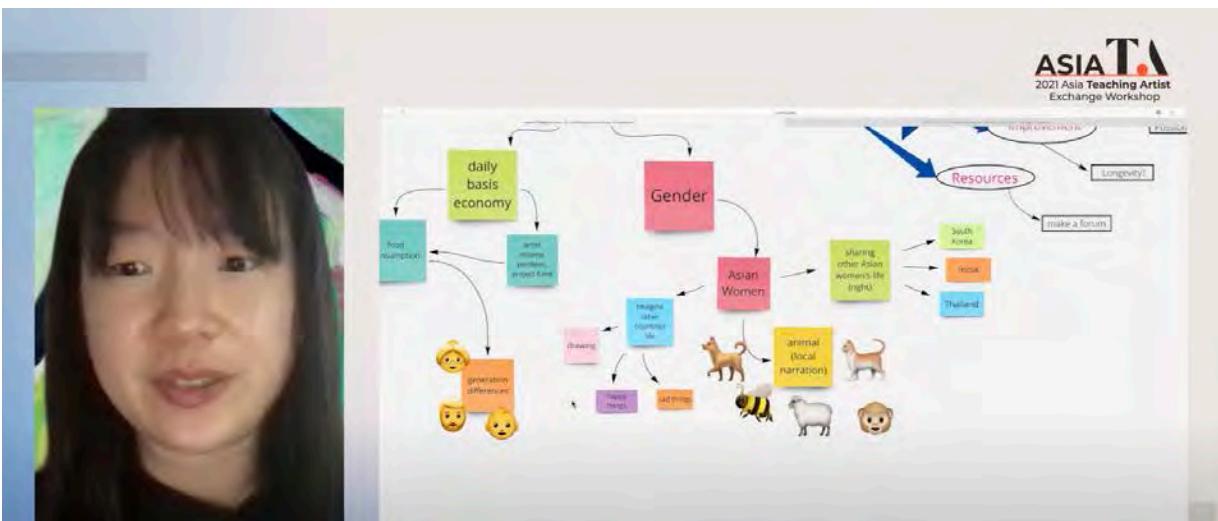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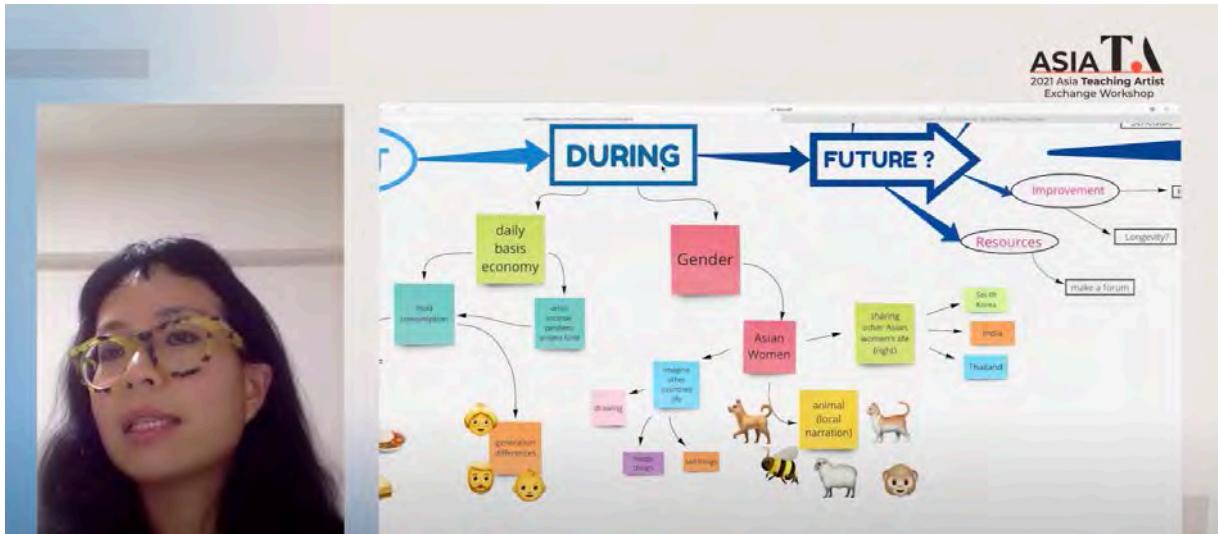
When COVID-19 hit the world hard, Sulju and Joey visited the website of the ARTE and saw an announcement that it would recruit the ‘2021 Asia TA Workshop’ in November 2021. It was fascinating opportunity to us: the workshop with Asian teaching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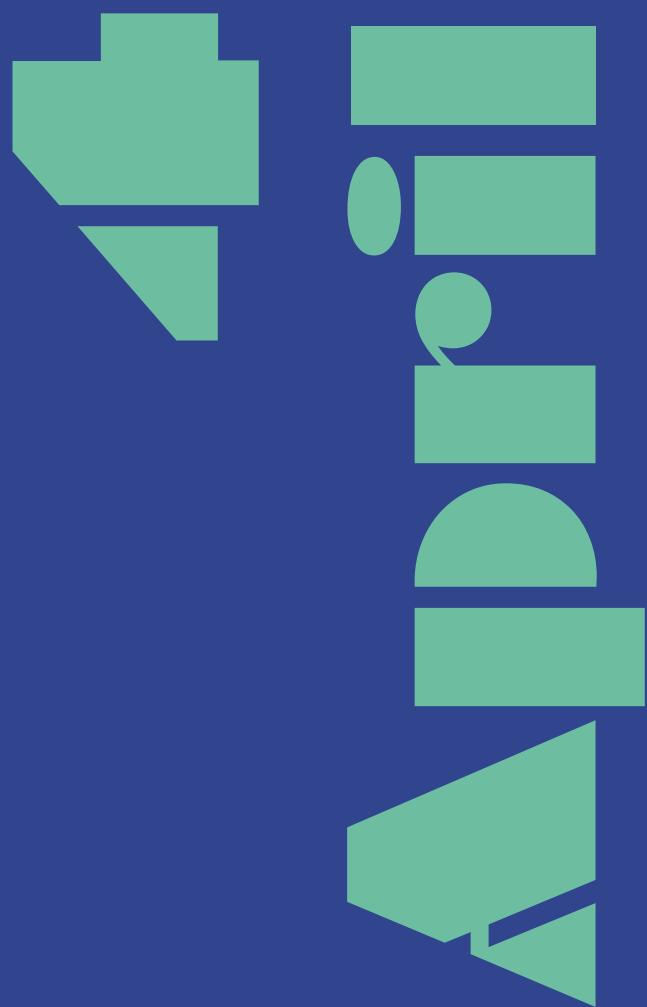
So, we applied without hesitation and was selected. At that time, Jaa Pantachat of Thailand was the leader of our team, and six other people have joined (to our team) from different Asian regions. At that time Sulju and Joey met for the first time and discussed about the issue of Asian women. It became the beginning of the Solidarity College project.

워크숍 & 프로젝트 전, 시작의 물꼬를 틀다

코로나 19가 심각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무렵 2021년 11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1 Asia TA Workshop’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아시아의 티칭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워크숍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신선했고,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래서 고민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기회로 선정이 되었다. 그 당시 우리 팀은 태국의 Jaa Phantachat가 리더였고 나머지 6명이 각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팀으로 설주와 조이는 처음 만나게 되었고, 아시아 여성에 관해 토론하며 ‘Solidarity Collage” 프로젝트의 물꼬를 틀게 되었다.





April, We can do everything

In April, Sulju visited ARTE website and saw the 'Call for proposals for 2022 Asia Teaching Artist Exchange Workshop and Joint Project'. She contacted Joey after saw that because Sulju and Joey made promise to "let us do some Art Project together someday."

Joey accepted Sulju's offer and share her determination that "We can do everything."

The project plan is to hold an art workshop "In Solidarity - Surrealist Collage and Writing", where the two artists who live in Singapore and South Korea, conduct research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their communities and cultures, discuss the future of Asian women, and hold an art workshop.

The workshop consisted with a time to discuss the stereotypes, expectations, and roles of women in society, learn about surrealism collage and talk about the connection with unconscious expressions.

Final project results were decided to be a book and video about the workshop. The goal of this workshop and project was to allow participants to discuss the topic of Asian women through artistic experiences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magine, create and collaborate on their own through various activities.

사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022년 4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2022 Asia Teaching Artist Exchange Workshop and Joint Project'를 선정한다는 보게 되었고, 맘설임 없이 설주는 조이에게 연락을 하였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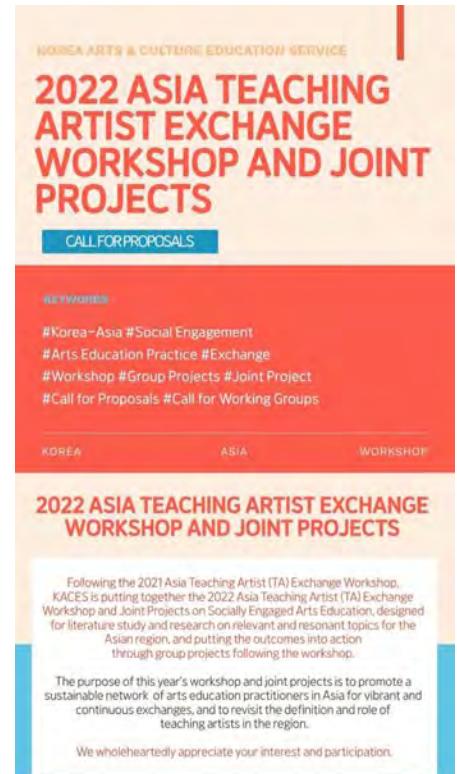
Asia TA Workshop'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 중 설주가 조이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우리 꼭 지구 어디에서든 만나서 함께 아트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약속 때문이었다. 조이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령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짐으로 지원하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계획은 “‘In Solidarity - Surrealist Collage and Writing”이라는 이름으로 두 예술가가 사는 싱가포르, 대한민국에 서로 우리의 공동체와 문화 간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여성의 미래에 관해 토론을 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

워크숍은 사회 속 여성의 고정관념과 기대, 역할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초현실주의 콜라주를 배우며 무의식적인 표현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은 워크숍에 대한 책과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워크숍과 프로젝트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아시아 여성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직접 상상하고, 창조하고, 협업할 기회를 제공했다.





May, dreams come true

We held online meeting at least twice a week to figure out how to improve the workshop. First, we made a recruitment form for the workshop. After we received basic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we made a contact network and planned basic workshop program contents and locations.

As the day we can meet each other in person become closer, everything seemed unbelievable. It was like a miracle. During our online meeting, we were very excited about the day we will meet in Singapore.

오월,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우리는 일주일 중 이틀 이상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워크숍을 만들 수 있을지를 구상하였다. 먼저 워크숍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양식을 작성하였다. 참가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받아서 연락망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과 장소 등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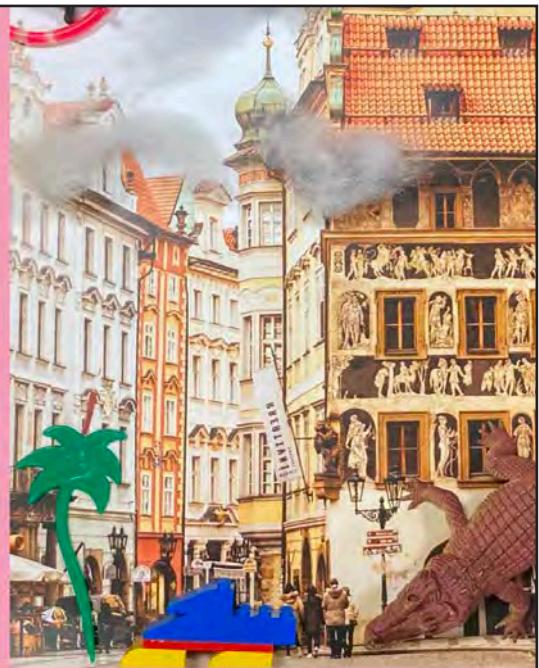
우리는 서로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기적 같았고 회의때마다 서로를 만날 생각에 설레하며 싱가포르에서 만날 날을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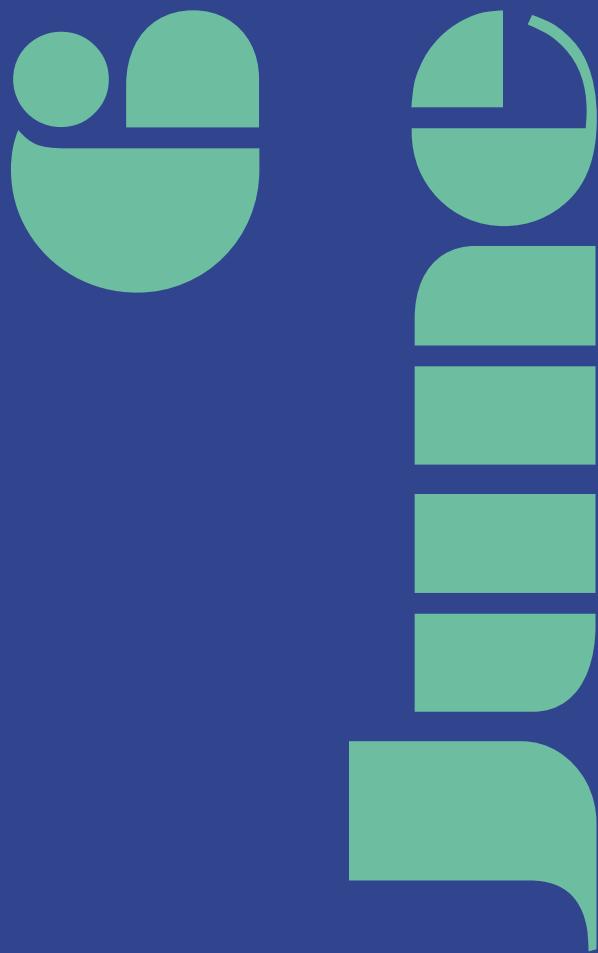
Revised proposal: Solidarity Collage

Kim Sulju and Joey Chin

“

What changes,
hopes or wishes do
you hope can be
achieved in the
future?





June, Sulju go to Singapore

From June 27th to July 4th, Sulju stayed in Singapore. From the day I arrived, we held meetings every night to prepare for the workshop and organize the project. We wanted to deliver as many art experiences for the participants as possible. We want them to experience the workshop's theme we made, 'In Solidarity - Surrealist Collage and Writing', a co-creation process that explores the personal narratives and aspirations of Singaporean and South Korean women through surrealist collage works and writing with the theme of solidarity. In Singapore, the workshop participants were wo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65, and their occupations included storytellers, nurses, lawyers, and art administrators. As the workshop progress,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and occupations have gathered. We got curious about what their lives are.

The workshop consisted of three parts. First, an excerpt from "Ji-Young Kim, born in 1982", was read and discussed. We were curious about how Korean women would be seen in Singaporean women's eye, and we compare each other's life. The interesting part was they already read the book and it was already a bestseller in Singapore. Also, they have South Korean friends or have visited South Korea often, and they knew a lot about South Korean culture. Thus, we were able to conduct a discussion easily. Hearing their passionate voices was intriguing. From the conversation, we understood that they had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iscrimination and difficulties from Korea.

Second, participant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stories and experiences through a surrealistic collage. (a) We introduced artists such as Dali and Frida Kahlo, famous surrealist artists. (b) We also prepared an environment for the participants that they can work comfortably. The participants enjoyed the environment, and they worked more than we expected and drew various results as their hearts called. It was a happy and grateful moment for us as well. (c) We also went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their results, especially because they are gathered from all different age

groups and roles such as 'Grandmother', 'mom', 'wife', 'job', etc. In the process, we talked that we just wanted to live as ourselves and discussed about the importance of women's solidarity as well.

Third, participants had a writing workshop and instructed to create an article based on a collage work using any artistic method they want to express themselves, such as Japanese haiku or poetry. They wrote their piece using various techniques such as diagrams, songs, and poems. After having some time to listen to people's work together, we realized once again how precious our solidarity was. The whole process of the workshop,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as a grateful experience. 'How will the collection of these records come out as a book? What will I look like after that?'. Also, the result was very successful too. After the workshop, many emails from participants impressed me. Some said they had a workshop with their children at home. I want to meet the people again and say let's continue solidarity movement, etc.

I felt that the Asian Teaching Artist Workshop will not end here. There will be time to build a solidarity movement again in Korea. We are going to prepare and are looking forward to it. Preparing the workshop, from preparation to the result wasn't easy but the process was filled with joy.

유월, 설주 싱가포르에 가다

설주는 싱가포르에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거주했다. 싱가포르에 온 날부터 매일 밤마다 우리가 원하는 워크숍을 열기 위해 매일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과정에 열의를 더했다. 회의를 진행할수록 초반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졌다. 워크숍의 주제인 'In Solidarity - Surrealist Collage and Writing' 답게 연대라는 주제를 가진 초현실주의 콜라주 작품과 글쓰기를 통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여성들의 개인적인 내러티브와 포부를 탐구하는 공동창작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에서 워크숍 참여자들은 18~65세 사이의 여성으로 직업은 스토리텔러, 간호사, 변호사, 예술행 정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말 나이도 직업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더불어 그들의 삶 또한 궁금해졌다.

워크숍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첫 번째로, 1982년생 김지영 발췌 문 남독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싱가포르 여성의 보는 한국 여성은 어떠한지 궁금하였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의 삶을 비교 분석해보고 싶었다. 정말 재밌었던 점은 그들은 이미 이 책을 읽었고, 싱가포르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책이라 한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있거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종종 있어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서 비교적 편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열띤 목소리는 더욱이 인상적이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힘든 시기들을 이미 겪어낸, 그리고 차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나 또한 좁았던 하나의 세계가 변하는 듯하였다.

두 번째, 초현실주의 콜라주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지는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초현실주의 작업을 진행했던 달리, 프리다 칼로 등과 같은 작가들을 소개했고 그에 이어 참가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가게끔 했다. 생각 이상으로 참가자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즐거워하였고 정말 마음이 부르는 대로 각자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보는 나로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과정 또한 진행했는데 특히 역할로서의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할머니', '엄마', '아내', '직업' 등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했고, 그 과정 안에 여성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세 번째는 글쓰기 워크숍으로 참가자들에게 콜라주 작품을 바탕으로 한 글을 제작하도록 알려주는데, 글 쓰는 방법은 일본의 하이쿠, 혹은 시 등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자신만의 다이어그램, 노래, 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글쓰기를 했고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또다시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책을 위해 모든 작업을 스캔하고 기록하며 벌써 기대가 되었다. ‘어떤 모습으로 이 기록집이 하나로 책으로 나올까?, 그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부터, 하는 중, 그리고 미래의 결과물까지 모든 과정이 설렘이며 감사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결과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수많은 메일 답장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해봤다는 이야기, 또한 다시 보길 원한다, 계속해서 연대하자 등등.

이렇게 아시아 티칭 아티스트 워크숍은 끝이 아니다. 한국에서 다시 연대를 꾸려가는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걸어갈 예정이다. 준비부터 진행 결과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 길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Imprisoned Mind" from *Demon State*
(forthcoming LP by The Observatory and Koichi Shimizu)

are in the present day with a new
center Dharma after five years
of Dharma, Ch

xeunt f

look forward to the new rather than recycle the past.
So, the archives over the years and how they will
networks to grow and come they exist in.
continue networks to shed light on the bigger
with future of the environment and our responsibilities with.
Hopefully this would in turn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and our responsibilities with.
picture, of mother that we need to come to terms with.
towards her that we need to come to terms with.

"We do not seek to
"Observatory
to beautify. We seek to
amply

TELE M 052
WILLIE LOA



John Dahl



her
heart grew and
lifted h er high
into the blue
sky...





TWO IS ENOUGH

两个是绝对不够
TWO WILL NEVER BE EN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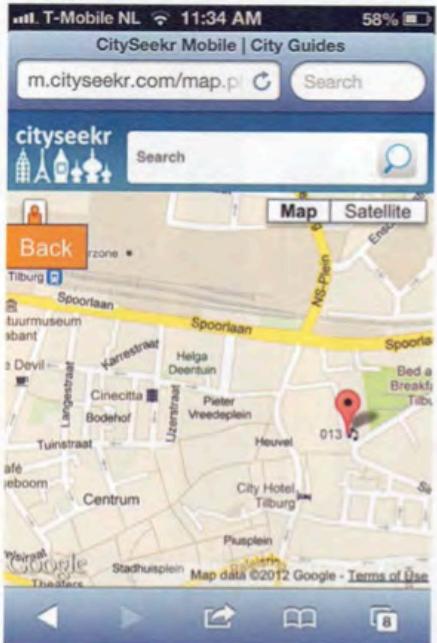
After a rain mushrooms appear on the surface of the earth as if from nowhere. Many do so from a sometimes vast underground fungus that remains invisible and largely unknown. What we call mushrooms mycologists call the fruiting body of the larger, less visible fungus. Uprisings and revolutions are often considered to be spontaneous, but less visible long-term organizing and groundwork—or underground work—often laid the foundation.

—Rebecca Solnit,
Hope In The Dark

10 July 2020
Reishi colonized by
green mold, sent to
com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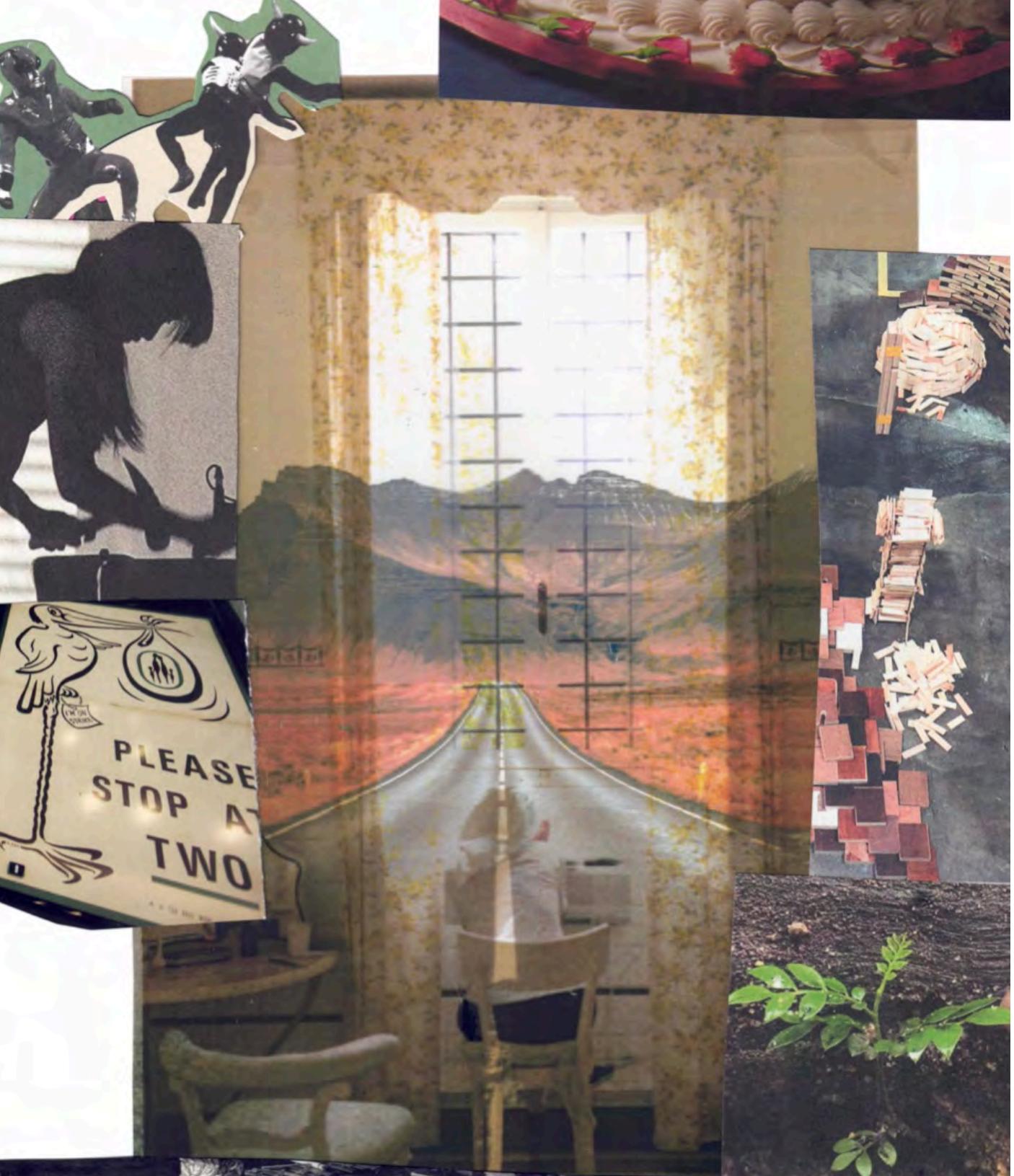
Will you give in to the world?



More fleeting than this enduring hour.



And then?



KOREA

COME ON SINGAPORE





21





Nature -
Balance

- What is love -
To be selfish to love oneself?
- To do things that one enjo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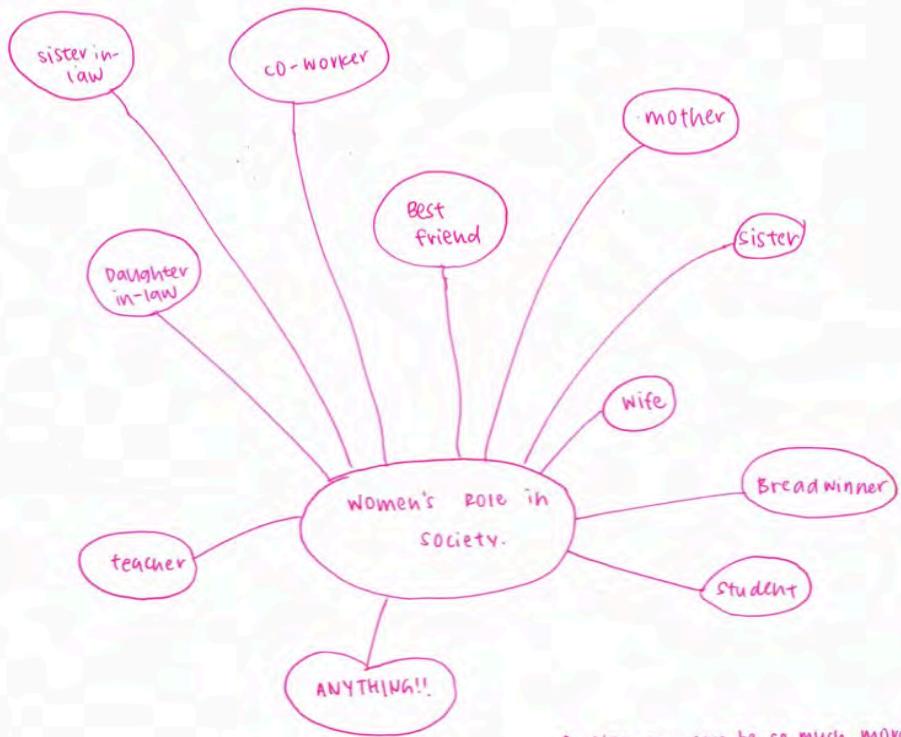
Millie
Tan
Teck
Mae
July
2022

By all means

- You have a right to be who you are and what you want to be.
- On your journey, there will be times you become doubtful, weaken and even hurt.

Do you know that you have an unlimited source of wisdom - ~~so-called~~ (data) - handed down to you from generations. It is in your genes. It's your legacy.

- Before you make your next move, remember to plan, to strategise, weigh in the pros and cons. especially the possible consequence that may occur.
- Many a times (proven) behind a wise man is an even wiser woman. ~~secretly~~ who hold the ground, and ~~guards~~ ^{of achievement} tends ^{so as} for her family.



A woman can be so much more than they think.

Woman should not be afraid of being judged for something that they do.

Woman can be anything that they want to be.

No different
Like any other person
Same, same,
But different

who they represent (themselves).
rather than what (gender) they represent.
As special as the next (non-female) person.

Without women, there will be no men.
Because who else can do the birthing
or give ~~the~~ the recognition and support
in the private sphere
that every person needs?

Reflection

Mother said, "I carried you children in my belly, not because I had to, but because I wanted to.

We bonded with each of you, ^{individually} in our own ways, and together while finding common ground.

We separated the work for chores, not by gender but by efficiency, preference, ^{roles} and ^{and} work you are interested in.

We taught you to do whatever job you want, to dress however you are inclined, to walk and to gesticulate in whichever way you feel most natural, to, generally, behave however you like as long as you are respectful and kind to yourself and others.

We taught you to be patient with others whose parents did not teach them the same."

We carry on her legacy.

Sodini Prathima
3 July 2022

Selfless in her nature towards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Having the strength and determination to fulfil goals / life's ambitions despite the struggles and/or sacrifices she would have to make

Expecting the same level of respect that men are given in family and work relationships

Realistic in her expectations of in striking a balance in all the duties she fulfills as a woman

Open-minded in her imparting of doctrines to her family, friends, children and peers

Eunyoung, Jiyoung, their brother and mother made three packets of ramen. [REDACTED]
[REDACTED] This is the first time. [REDACTED] Jiyoung told him, "Jiyoung should leave first."
[REDACTED] Mother should serve herself first, [REDACTED]. She proceeded to take the

noodles [REDACTED] the brother [REDACTED] mother, [REDACTED] to leave [REDACTED] the noodles [REDACTED]
[REDACTED].

[REDACTED] Eunyoung listed the washing, cleaning and laundry she and Jiyoung busied
themselves with, [REDACTED] Jiyoung [REDACTED] her brother [REDACTED] Eunyoung
The mother [REDACTED] reminded [REDACTED] the brother was still young. [REDACTED] Eunyoung [REDACTED] that [REDACTED] had
to take care of Jiyoung's bags, school supplies and homework [REDACTED] when she
was his age, and together with Jiyoung, they mopped the floor, did the laundry, fried eggs and
made ramen.

The mother insisted that it was [REDACTED] was the son. Eunyoung argued that [REDACTED]
[REDACTED] because he was the son, should do his part now, especially as
Jiyoung also started menstruating. [REDACTED] This [REDACTED] were a painful, shameful
secret. He could help the women in his family

To what do I owe him

This brother of mine

He gets the egg and the bread

And I may get the crust

Are we not born of the same

Mother and Father

Does his grandpa

Give him more right

Than me?

~~that's not accept~~

I could learn to read

Even without help

Jasmine

Even without light

Even without cajoling

~~Even without ~~that's~~~~

But yes I will do the chores

And yes I will ~~will~~ learn how to show

My anger, my angst, my disrespect

Because that will be my right

To be stronger than him

Stream of Consciousness about the struggles of a mother in the workplace, where her colleague dismiss ~~about~~ her situation being pregnant. To be able to work and provide for the family is a sacrifice. But many of us still dismiss it. The book is in 1982 so it is more privileged to be a pregnant woman in the present time. In the public transport we have assigned seats for them and also the toilet and grocery ques. And I see that people are open minded now on this discussion.

Old house

Youngster dress up in front

Lady dinner

Reflection : What is a woman's role in society

(in Singapore, Asia, in the world)

Nurture, influences, shape, role model,
leader by example,
generosity, uplift from us

FIERCE

Exhilarating

MOTHER OF NATURE

AT FIERCE

~~A force to be reckoned with~~

- mother of Nature

~~A force~~ Fiery

~~A gentle~~ Fiery

- Gentle yet ~~reckless~~

- A ~~beautiful~~ sight
to see

~~A force to be~~

~~FIERCE~~ -

If one goes to a business trip, most will stay in hotel, but Singaporean hotels are so expensive that Joey offered me to stay at her place to save the project cost. We concluded that stay in her place can save money which will help create better project. So, my answer to the Joey's offer was "Why not?". On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Asian families is that they all live together until married, so staying at her place meant that I would meet her family as well. Joey let me use one of her beds and even installed a hanger for me to hang my clothes comfortably. The room was decorated in Asian style, which I could feel the warmth.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bugs due to the hot weather of Singapore, but I was okay anyway since I was just grateful to get a place to lie down. Frankly, I was proud of myself to be able to think that way.

On the first day, everything was difficult. It was my first overseas trip since the Covid-19 outbreak, and I was carrying the emotional burden from Korea. In fact, I was worried about staying in another family's house, and lot of thoughts ran through my mind on that day. Then, I thought to myself that, 'I don't know. I will stop worrying and show my thoughts and feelings. I only live once anyway!'

The house has size of 100 square meter, and the interior was mostly colored red. Joey's family talked to each other using English, Malay, and Chinese. However, English was their first language and it made me so happy because I could communicate with Joey's family as well.

Now, when I remember the 7 nights and 8 days of stay in there, only one word comes up to mind. I stayed with MY family: a true family.

I received so much care as if I was their daughter, not a guest. A funny coincidence was that, Joey's younger brother and I have the same birth date. After Joey's parents found out, they started calling me as their daughter. They loved me so much and complimented me every day. I have no idea why they showed so much love to me.

For my case, maybe, their family culture suited me well and sharing delicious food with them also made me think of them as my family. I enjoyed spending some part of my life with them without worrying other things. I learned how important it is to live a pleasant and happy life, and there are lots of unexpected opportunities out there to have that.

The experience with Joey's family became an irreplaceable asset of my life. What is family, what is culture, what is life? It was a time to contemplate those questions.

Truly,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gathered in Singapore, and the country showed me many aspects of multiculturalism. It was the perfect city for me to contemplate on something. Also,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as I am interested in experiencing different cultures. It felt like a frog, which thought the well it lived in is the whole world, came out from it and realized how huge the real world is. An indescribable refreshment shook my head.

To escape from the mold around you, one should be a pilgrim at some point of their life.

Through the wondering, I understand myself more and am able to discern more about what is mine and what is not.

I will never forget the time I stayed there. Joey's family considered my happiness as their number one priority. While I was there, I heard them saying "Never Mind" a lot, because they were enjoying their life and have leisure. Maybe, Life of Singapore let them have such attitude, but I am trying to bring the phrase into my life in Korea and make it my own.

보통 출장은 호텔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할 텐데 싱가포르 호텔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이는 자기 집에서 머무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값 비싼 호텔보다는 불편함을 마다하고 조이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 판단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나의 대답은 “Why not?”이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아시아 가족 특성상 결혼 전 이기에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었고 나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조이는 자신의 침대 하나를 건네주었고, 또 내가 편하게 옷을 걸 수 있게 행거도 하나 설치해주었다. 밤은 굉장히 아시아식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싱가포르의 더운 날씨 특성상 벌레는 많았지만 지금 내가 이것저것 마다할 때인가.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너무 감사했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하숙하며 다른 가족들과 동고동락하기로 마음먹은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다.

첫날에는 적응하기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출발해서 그런지 모든 것들이 살짝 쉽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로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사실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문다는 게 얼마나 실례인가 싶기도 하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자. 한번 사는 인생 생각하다가 머리 터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30평 정도 되는 집은 수많은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은 영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를 섞어 쓰며 대화했다. 물론 제1 언어는 영어라서 조이의 가족들과 말이 통한다는 건 또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곳에서 7박 8일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딱 한 단어가 생각난다. ‘가족’ 그 자체였다. 그냥 상투적인 가족 말고 진짜 가족, 정말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단순히 하숙생도, 게스트도 아닌 점말 하나의 딸로서 그들의 케어를 받았다. 점말 재밌는 스토리는 조이의 남동생과 나는 생년월일이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쌍둥이라 부르며 지냈고, 조이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하는 표현, 표정들을 너무 사람해주었고 아낌없이 매일같이 칭찬해주었다. 그래도 좀 웃기지 않은가. 무엇이 그렇게 품했길래 가족까지 되어버렸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의 가족이 나에겐 머색하지 않았고, 실은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한 뜻 했다. 한번 사는 인생 심각한 고민할 것 없이 한참 웃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다. 유쾌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예기치 않은 아름다운 기회와 선택들은 무수하게 세상에 존재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눈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분별된다.

내가 경험한 이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자산이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이지 이곳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문화의 끝을 보여주었다.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사색하기엔 최적의 도시였고 너무도 흥미로웠다. 동서양의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모든 것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느껴졌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밖으로 나와 말로는 표현 못할 상쾌함이 내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가진 틀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삶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떠돌면서 사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 분별하며 난 더욱이 나 자신이 되어간다.

‘세상에 이렇게 스윗 할 수 있어?’라고 할 만큼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조이의 가족들은 내가 집에 머무는 동안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을 1순위로 여겼다. 그들은 행복을 1순위로 여기고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할지 매 순간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었던 문장은 “Never Mind”, 삶을 가벼이 즐겁게 여기는 태도. 물론 여유가 넘치는 싱가포르 삶에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문장을 이제 한국에서의 삶에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Sulju's Episode 2. With local Singaporean sisters

Joey introduced her friend, Pearly. The two met at their workplace. Their age differs about 10 years. Both are older than me, and it is something great to meet these wonderful new older sisters in Singapore. I thought about why I was so happy to be with these older sisters. First, there was no attitude of 'Keep it up and let it go'. Most of the people around me who were older than me were like, 'You can't live like this, live like that.' However, they are exceptionally free to find the path what they want to pursue and live by their own standards while being self-sufficient.

Second, they have attitude of seriously reflect on, ponder upon, and act on the events of their life: Such as how to live among various people and what kind of person that they should stand together. Usually, people in their mid-30s to mid-40s want economic stability and normal life. However, I wanted to resemble their lives that not give up their value while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s always, let's live boldly as soon as possible. It takes a lot of effort to set a dream. I try to do what I want to do, no matter what, so I can get up again and rise to my dream someday.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article with my poem.

To the Baby Bird - Sulju Kim

**Baby bird drenched in the rain
what are you going towards?**

Soft gestures

**The figure of walking wobbly on small feet
You look very hard**

**Baby bird melted in the hot sun
what are you going towards?**

fluttering feathers

The way it crawls

You are doing very well

**Baby bird feeling the cool breeze
what are you going towards?**

설주의 에피소드 2. 싱가포르 로컬 언니들과 함께

조이는 조이의 친구인 펄리를 소개해주었다. 이 둘은 일하다가 만났고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 둘다 나보다 나이가 많기에 이렇게 멋진 언니들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기분은 또 색다르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언니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봤다.

첫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태도가 없어서 너무 편했다. 주변에 나보다 나아가 많은 이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춤고를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유난히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자족하면서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언니들. 너무 멋지지 아니한가.

두 번째로, 진지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였다. 자신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지 끊임 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놀랍도록 멋지다고 생각했다.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안정과 보편적인 삶을 바라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닮아가고 싶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기왕 살 거 과감하게 살자. 현실을 꿈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원동력과 힘이 필요 하지만, 정말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잘해왔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치고 아파도 또 일어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훨훨 날겠지. 자작시로 글을 마무리한다.

아기새에게 - 김설주

소나기에 흠뻑 젖은 아기새야
무엇을 향해 가는 거니?

파닥파닥 여린 몸짓이
작은 발에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이는구나

뜨거운 햇볕에 녹아버린 아기새야
무엇을 향해 가는 거니?

부들부들 떠는 깃털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잘 해내고 있구나

선선한 바람을 느끼는 아기새야
무엇을 향해 가는 거니?

째깍 거리는 입모양이
성큼성큼 걷는 굳센 다리가
무척이나 용감하구나



July, Focus on work everyday

We plan to create a workshop again in Korea after spending dreamy time together in Singapore. Surely our relationship has changed before and after we met in person. We talked over the phone every day to ask how each other is doing and starts to have more online meetings. As such, we spent a lot of time meeting in person and drew our dream as a female artist duo. Also, we made more time to work together to study Asian women.

(Transition needed such as: Next is the book we have discussed during the study)

The book was titled “SELFHOOD, ARTISTHOOD, MOTHERHOOD.” The reason why we picked up this book was simple, because its contents remind us of the workshop in Singapore. The book is the story of a female artist. We were surprised how she could protect the identity as mother, artist, and member of the family at the same time. The book ended with encouragement to the readers that “you can also do it”.

(In the book) They abandoned their own selfish desire, devoted themselves, and helped each other to raise their child well.

When she got a child, many new difficult incidents that she never imagined came to her. However, she did not give up and continue to live as a successful artist.

Now the female artists in this book have become our role models. After reading the book, we promised not to lose our identity as an artist as we hav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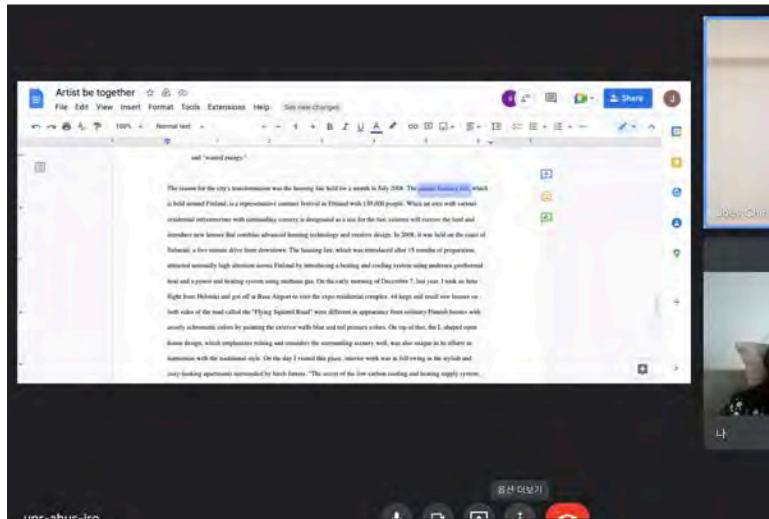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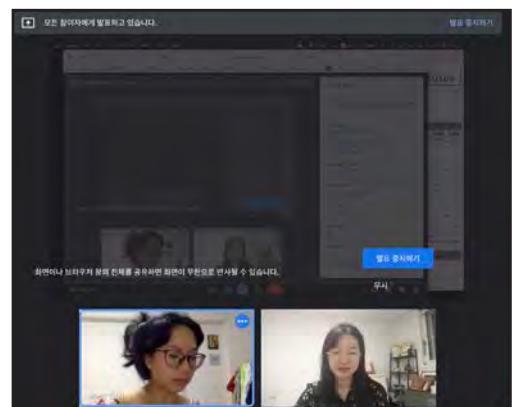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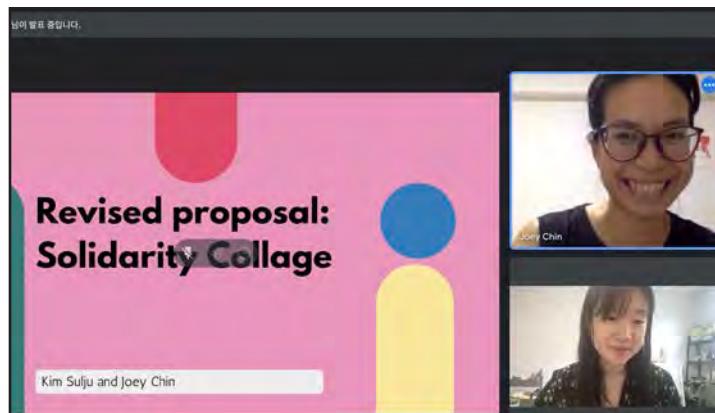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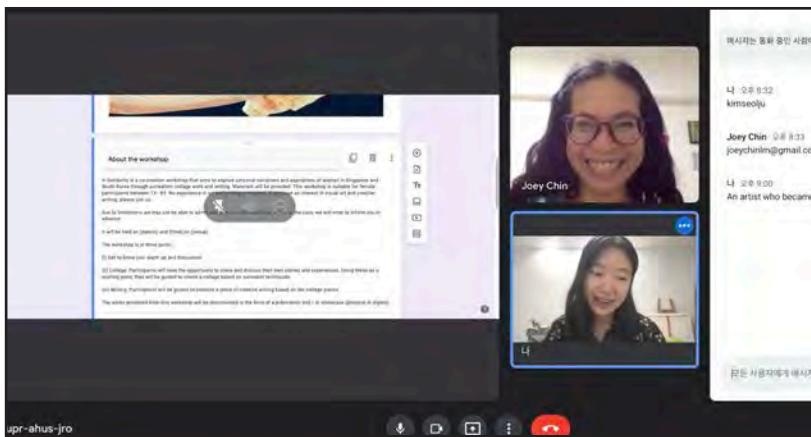
칠월, 매일 작업에 몰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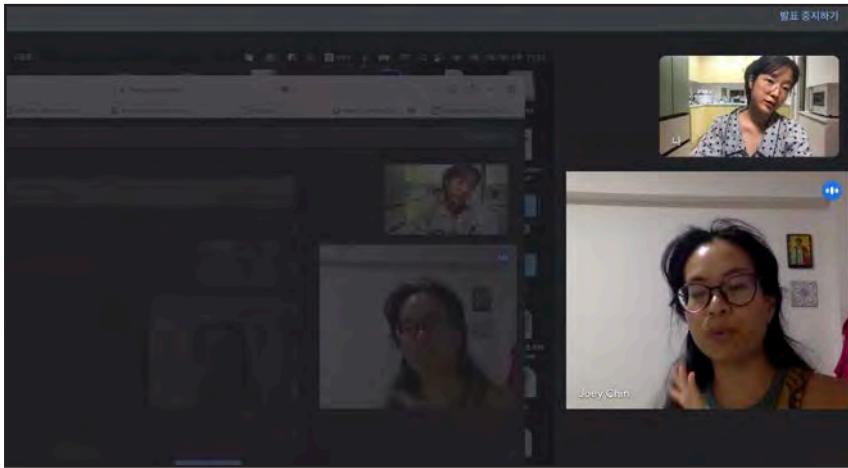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함께 보내고 다시 우리는 한국에서 워크숍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였다. 확실히 만나기 전과 후의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졌다. 미전에 규칙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하던 횟수는 더욱이 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매일 통화를 했던 적도 있었다. 그 만큼 직접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이 든 우리는 여성 아티스트 듀오로서의 꿈을 그렸다. 그렇기에 아시아 여성에 대해 작업을 하고 연구할 시간은 더욱 많아졌다.

그중 인상 깊었던 책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자아, 예술가, 엄마(SELFHOOD, ARTISTHOOD, MOTHERHOOD)’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결혼도 엄마가 되는 것도 아직은 너무 먼 미래 같은 우리가 책을 집어 든 이유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워크숍을 생각하며 선택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엄마가 되면서 우리의 자아와 예술가의 정체성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고 이 책은 아주 집약적이고 단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열린 결말을 주었다.

글을 읽으면서 생각 이상으로 여성 예술가의 삶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 그들의 파트너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삶에 개입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여성의 헌신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나의 편견도 정말 많이 깨졌다. 여기에 나오는 한 아티스트의 경우 아이가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직장을 먼 나라로 옮겨야 할 때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따라나서는 파트너가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한 아이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며 돋는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일들이 오지만 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성공적인 예술가로 살아간다. 지금 이 책에 나온 여성 예술가들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처럼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자고 약속했다.





The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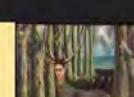
Give examples of surrealism and its emphasis on the imagination, impulses and dreams (artists and music videos).

Surrealist art movements and features, dream like elements, surreal motifs and elements, suspension of reality.

Participants to start drawing based on discussion

Designing and decorating of surrealistic elements

How to incorporate mixed media







Aug, Joey go to Singapore

Getting ready for the workshop was interesting.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were all young women. It was different from Singapore which had a wide age range, and I was excited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topics that were discussed.

It turned out that the workplace and career were topics that were brought to the surface – and naturally so, since they are at an age where a lot of time is spent at their workplace, building a career and interacting with workmates. They discussed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and workplace sexism.

팔월, 조이 대한민국에 가다

워크샵을 위한 준비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던 싱가폴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었고, 나는 두 워크샵에서 논의될 주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지가 기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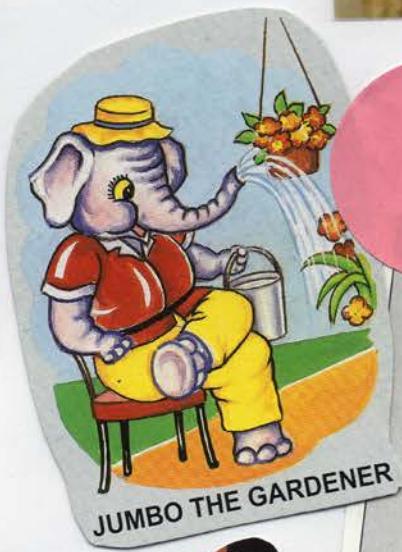
참가자들의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직장과 커리어가 그 주된 내용이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들의 나이대는 직장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며 커리어를 쌓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쌓는 시기이므로. 그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와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내 수입으로 내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이 보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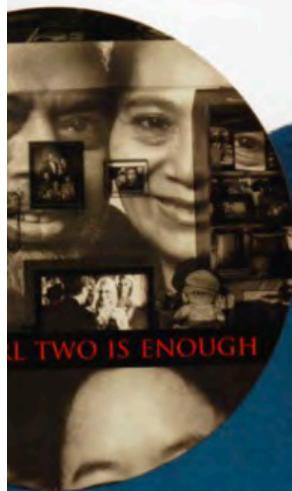


mind









제 ver.2
<타오르는 삶>



LIFE
LIFE
LIFE



Yes

OME



HOPE

HEART

rror

ENOUGH

LOVE / HARMONY / INCLINATION
TRAVEL / INTERESTS / SLEEP /
FLEXIBILITY / RESOURCES /
HAR / COMMITMENT / SPACE /
COMPETITION /

ONLINE CAMPAIGN 2 PROMOTING ODD, EXPERIENCES



Qifalole

Stay Alive



"Art is a way of
reorganizing one's way of
looking at the world.
Which is why it will always
be modern."
- Louise Bourgeois

RESET

asoumiae



LUXURIOUS

EXPERIENCE

SO

LAZIUS

BUCK

COMING

ON

2012

NET

2012

LUXURIOUS

EXPERIENCE

ON

2012

NET

2012

LUXURIOUS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아기

↳남편



얼마나 실행가능한가?

구분과 안정보다는 공정이 필요한 시대 / 질문 → 답? ~~질문~~
나이미/연령에 해당되는가?

→ 노인과 아이 그리고 여자는 약자라는 정의.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면 전쟁 중에,
사과 씹을 때 우리는 노인과 아이만 구해야 하는가?

→ 여성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러면 남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여성에게 감내해야 하는 것들 VS 남성에게?

→ 아이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가?

→ 육아는 그동의 일한(경력)이고 안정화는 그것에서의 반발은 어떻게 해는가능한가?

→ 미리언제 노출되는 여성의 역할은 어떠한가?

- 여성은 주인공으로 한 명하는 인기가 없다는 것. → 더 많이 봐야하는!

→ 나는 여성 그래서 나는 약자인가, 약자라고 느끼는가? 언제? 어떻게?

① { 1) 회사에서 이↓————— 110
2) 학교에서
3) 일상 생활에서

② { 4) 사회에서
5) 국가에서
6) 대중에서
7) 지구에서

→ 너의 이슈는 나의 이슈인가?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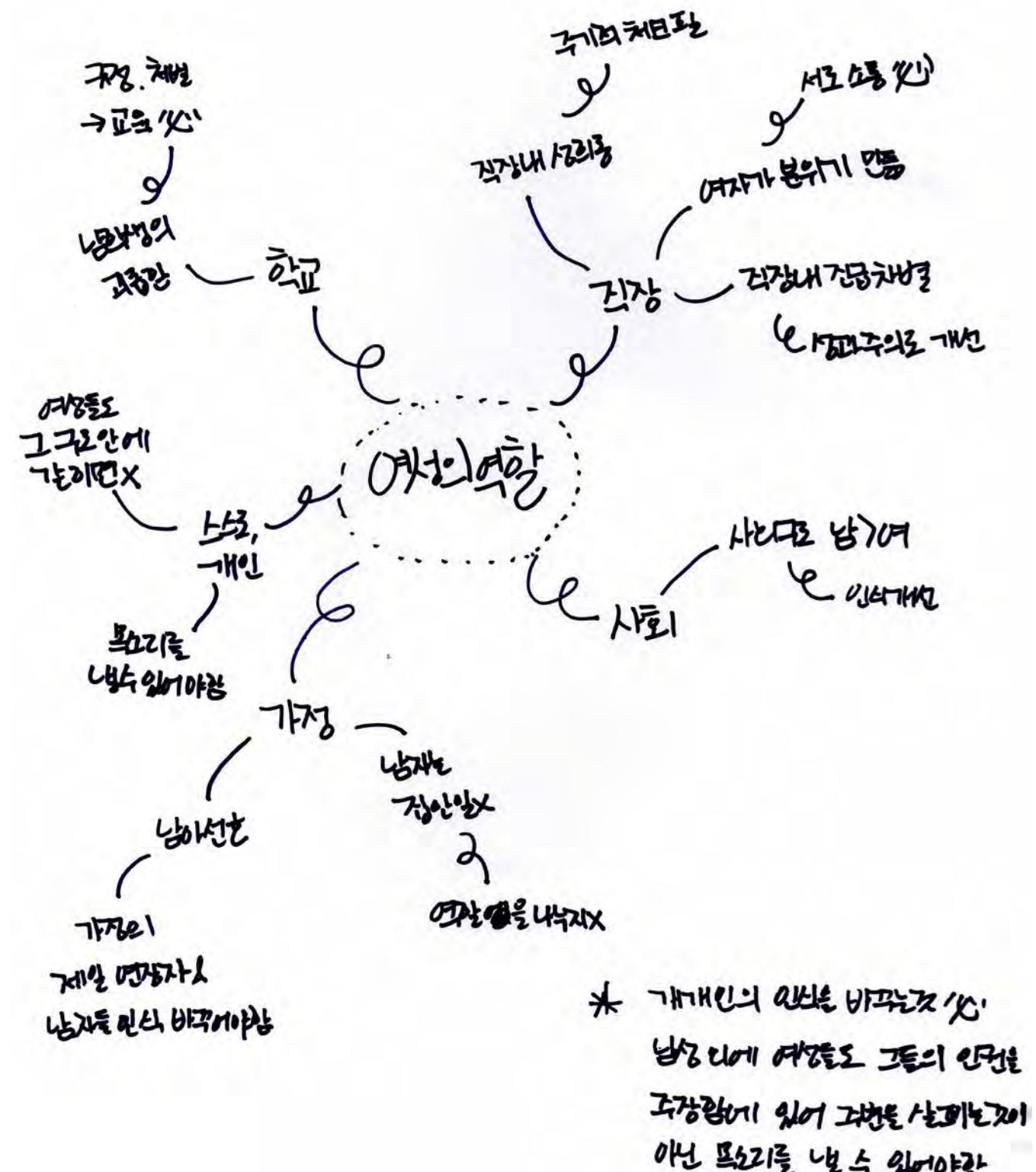
→ 교육의 제일 놓아둔는가?

→ 우리인 영을 전제: 아니!

사회에서는 '나' 보다는 '여성'의 속성을 주목함.

한국적인 분류를 위해

ナリ



-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아시아, 한국, 전세계)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불편한 일이 많다.

工作中과 공터길을 지나갈 때나, 밤중에 대시 타거나 할 때 걱정이 들 수 밖에 없다.

외국에 나가도 아시아 여성들에게만 유독 천국 같을 것을 행하여, 직장에서는
때를 갈다는 이유로 성희롱, 인적 모독 같은 일을 많이 당하였다.

해당 직장을 여성으로 자체를 높여야 하는 것.

- ① 여성의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하다는 시각은 없애기.
- ② 여성의 출산 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보통~~ 3기.
 출산 후에도
- ③ 집안일, 육아는 여성의 일에 아닌 함께 해내어야 한다는 인식 만들기.
- ④ 외국에서 천국 같을 것을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
- 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 남성 위주인 법을 여성과 같은
 가치로 바꾸기

여성에게 서주는 법으로는 개별화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 성별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시대 ~~전통~~ 때부터의 유고사상.

남녀로 나누는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인권이 거의 없다는 것,

혹여 명예를 저질러도 그만한 책임을 알지 못하는 솔방망이 처벌이 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남성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낮은 지위에
있어 달해도 신고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화문

미국가 세상에 나온 여성은 남성들을 반발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연대했으며, 미국 청년을 1800년에 블린 못했지만
여성들이 2010년 학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으므로

미국 여성연대를 많이 하는 것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의소리를 높이고,

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 해야 하는 일, 부끄러운 일부터 찾으나가보다.

왜 여성은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느껴야 했을까? 나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세상. 본래가 아닌 여성으로서 인간답게 사려야 하는 세상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유에서 알듯, 여성은, 남성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남 성별에 결론지어 보지 않는 시선. 여성에게 때문에, 대상화되는 것의 아닌 남성으로서 바라보는 세상. 남성을 바라는 일 여성의 남성이 대상화. 물질, 문명 모두가 시선을 바꾸라는 불안 것이다. 따라서 부끄러운 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사회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법적 차별, 혹은 폐쇄적 구제, 차별을 위한 법을 신설하여 걸친된 해롭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예외로는 각종 성범죄, 흐름, ~~성~~적 입장에서의 차별, 오는 출산과 가정의 역할만 ~~성~~하는 풀로 등이 있겠다. 구체적인 법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남녀로 분위기 조성에 박차내.

그리고

직접 남녀로 하지 않더라도, 걸친된 것은 걸친다. 안 하면 것, 이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살고 고통과의장을 반드시 갖는 것이 남녀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않으면서 생각한다. 대안에서, 한살 관심을 가질여부 한다. 서로의 안락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역할로서 출고 있지 않게 하는 것이며 남녀로 충돌을 이루기 위한 남녀정이다.

따라서, 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①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② ~~여성~~ 분위기에 대해 의견을 제언하고 ③ 서로의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여행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이전에 SNS를 하다가 업로드되는 영상을 볼 적이 있다.

다소 흥미적인 영상이었는데 우리나라 남성유튜버가 아시아 여행을 가서 게임하는 것이다.

그 게임은 노정의 품을 내고 물풍선을 터져 대상을 맞추면 맞춘 대상이 물로 뿜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아시아 국가 예술(해당국가)이었다.

물풍선을 터지며 재밌게 웃고 맞추었다고 즐거워하는 유튜버가 흥미적이었다.

아시아인, 예술·남성을 떠나 사랑으로서 풍들한 권리로 갖고 있는데
상풍자령 느껴졌다. 생체를 유지하기위해 일을 했겠지만 더 나은 것은 없었을까?

세상은 많이 좋아지고 점점 빛나지만 아직 한켠에는 도통의 끈이 끊어져버렸다.

이들이 적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이제한 부분(세상에 환경이 필요한 일)은 말해 실현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권리로 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비율교육과 사랑 소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2번의 회사 생활 中, 나보다 직급 높은 남자 상사의 빵은 발언 레

1. 첫번째 회사

사장이 대놓고 (나이 할배임) 내 자리에서
라떼는 말이야~ 시전함.
웃고 지 아들 만나보라고 눈치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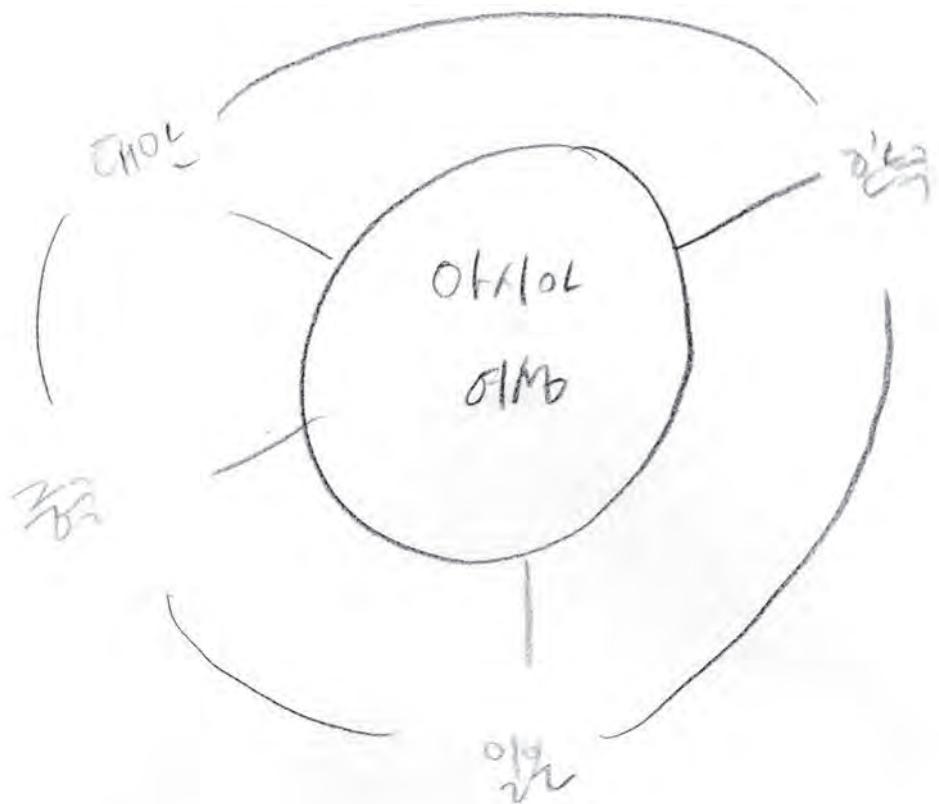
할배 아들 진짜 내 스마일 아니고 클병걸래서 거칠하는 티 냈는데
케잌 X 1234567 ... 반복해서 스트레스 누
나를 혼총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좋았음.

2. 두번째 회사

영업직 → 남자 직원들 보면 방긋 방긋 ^_^ 웃으라고 눈치 줌.

안경쓰고 가면 안경쓰지 말라고 눈치 줌. (너가 내 눈 아프면

책임질거야?!
^^;)



여성 아시아 여성은 세계 여성의 일을 함께 기념하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장 후회

-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운영자 역할을
- ① 여성화 기획 부서
 - ② ~~Asia girl & woman~~ 행사
행사가 주제로 활동하는 성격입니다
 - ③ 여성 평화 모임

여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에는 어떤가들어!

나는 나쁜 짜증이나 악수에 대해서 과정적인
진짜는 대체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가 같다.
남자들은 부터 여성의 유행을 빨리 다닌지 대체로
는 느낀다던지 이런저는 biological이 아니라는
여자에게서 기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나하고 문제의 이유는 남성이기 때문이지만
나는 여전히 차이인가 같다. 나는 이런 이유로
나의 유행적인 열여덟 살짜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뉴스에 나고 싶다는 저지른 풍악방은
말해보지도 않은 건 여전히 다른 유행이거나 특이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성차별인가 아니면
개인의 성격인가로 여겨지는 것에 남들도
이야기 같다. 유행처럼 여겨지는 유행/
개인은 해외의 유행에서 충돌하기면 어떠한
느낌을 더 아파하고 걸었고 있다는 인상을 더
줄을 것 같다.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들은 아름다운
인연이라며 거듭되며 예쁘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 그걸면서 학생이 다가 이성을 알아보
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 정의를 대표하는 건
지만, 그래도 어울기나? 이상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는 그걸 남자에게, 여성에게 유행하는, 유행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같은데, 유행이라는 유행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 유행이라는 단어에 애매로운 대부분은
인식이다. 그래서 그의 유행을 좋은가? 나쁜가?는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나쁜 유행에 비정해지거나
나쁜 유행이다. 유행을 더 좋았거나/ 가능면 무슨 교육이
다. 대체로, 거짓이 아니면 괜찮고? 이런저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간들이
아직까지는 나쁜 유행에 나는 꾸지자면 안된다거나
다른데는지 않고 그걸 나쁜 유행에 듣는지 알고 싶다.
나는 그것이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그걸 이해는 자기도
해야지, 나에게는 더 단단해지고 듣는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되도록 편안해야. 나의 유행한 늘어놓을 것이
아니나 나를 아울면서 알 수는 있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이 나를 더 잘나가/ 돌아갈 기회
를 찾는다. 그걸까 여자가 살기 때문이다, 여자만 너무
여행하다 아름지만 아름다워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힘을
써야는데 힘을 가졌다. 나에게는 아울면서 듣는 힘과
말로 단단해지기 찾았던 유행에 있는 우리니까
나를 아울려줄도 아니지만, 유행의 이유를 성별에 두면
안된다라고 생각된다. 여성과 남성의 유행한 차이는 끝지.
그걸 차별화하고 아름다워 말고, 다른 그대로 말아들이고
도 좋지만, 한 번 한 번 더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기적, 유행하다는지도 여전하고 아름다울고
하지만 나를 위해 나도 괜찮은 비교보다 나를 발전시키고
웃음을 고민해야 하는 것과 기초에 끝을 것 같다.

비록 과도기 안에 살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꿈을 가지며,
다시 해내자.

우리는 여성으로서 권리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여겨지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

할머니와 아버지 같은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여성으로 살아나고 싶어

여성이 고민하며 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시아 여성으로

친구와 많은 이들

그들이 나를 계획하는 동안에 난다.

고민은 끝, 행동은 끝까지,

여기 끝, 여기는 나다.

여기 눈을 둘 때 행동을 시작하다.

Joey's Episode 1. With Ajin

I had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meet Ajin, the CEO of WNC. We talked about everything under the sun, from her work as a young CEO to how women's employment had been impacted by COVID-19. I asked her about intersectionality and feminism in Korea, and she told me the conversation had not reached Korea. I could see how intersectionality and feminism in largely homogenous Korea would take on a different form as compared to Singapore.

Ajin was an inspiring person to speak to, as we discussed the numerous duties she oversaw, including content development, fundraising and speaking at international and local panels -something that requires creativity and management skills. One of the important and urgent topics was about women whose jobs were at stake as a result of the pandemic.

I realised that the mission of WNC was Why Not, Why Can't?, which I found to be empowering and inspiring. The why made me see how curiosity, wonder and problem-solving could be a multifaceted approach in resolving societal challenges.

As a child, I thought of how whenever I asked the question why, I was always given the lousy answer: that's the way it is, there is no why. Back to WNC, I thought of how asking why and why not / why can't was so important. It meant thinking critically, looking beneath the surface and not necessarily accepting ready-made or easy answers.

조이의 에피소드 1. 왜 안되겠어?

WNC의 젊은 CEO 아진과 만날 멋진 기회가 있었다. 햇볕 아래에서 우리는 젊은 CEO로서의 그녀의 삶에 대한 내용부터 COVID-19가 여성 고용 시장에 끼친 영향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에게 한국의 페미니즘의 교차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그에 관련된 담화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대답했다. 페미니즘과 획일적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와는 꽤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진은 함께 대화할 때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맡은 다양한 업무들, 즉 창의력과 경영 기술이 함께 필요한 콘텐츠 개발, 모금, 국제와 지역의 패널 활동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중 특히 중요하고 시급했던 주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력에 위기를 맞게 된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WNC의 사명이 나에게 힘과 감명을 주었던 “Why Not, Why Can’t?”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Why’를 통해 호기심, 궁금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면적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릴 적, 내가 why? 라는 질문을 했을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원래 그런 거야’라거나, ‘이유 따위 없어’같은 형편없는 대답이었다. 다시 WNC로 돌아가면, 나는 거기서 왜 그런지(why), 왜 아닌지(why not), 왜 안되는지(why can’t)를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이며, 걸이 아닌 내면을 보며 단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된 간단한 답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Joeys Episode 2. Feminist

Sulju told me that it is very common for men to ask women if they are feminists while on a date.

To me, it was akin to asking about your political affiliation or opinion on certain policies. Are you on the side of the ruling party? Or the opposition? Are you pro-migration? How about foreign talent? It was as though your response would determine a second date. I could see how polarizing feminism can be in Korea.

I took some time to attend the Wednesday Demonstration. I did no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but it appeared there was also a counter protest against the demonstration. My translation app did not seem to do a good job of translating the text on the placards, but the fervor, conviction, and passion needed no interpretation.

조이의 에피소드 2. 페미니스트

설주는 나에게 한국에서는 첫 데이트 때 남성이 여성에게 페미니스트인지 묻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치적 성향과 특정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묻는 것과 비슷해 보였다. 너는 여당 지지자야? 아니면 야당? 이민에는 찬성해? 해외 인력을 쓰는 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 같은 것이, 두 번째 데이트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보며, 한국의 페미니즘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요일에 시간을 내 시위에 참석해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위에 대한 반대 시위 또한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비록 내 번역 앱이 플래카드에 쓰인 문구를 제대로 번역하진 못했지만, 거기에 담긴 강한 신념과 확신, 그리고 열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굳이 번역도 필요 없었다.



Sep, Run Cry Music

Since Joey left Korea, we thought a lot about how to achieve the solidarity of Asian women from now on. Often, we missed the times that we were able to talk each other directly. In doing so, we started to feel a lot of stress and pressure as each of us must live alone in our own country as an artist. So, we talked to each other and decided that if we feel stressed, we will run, cry, or listen to music to overcome those hard moments. That's how we spent our September: run, cry, and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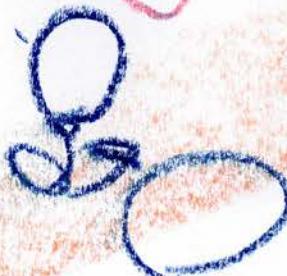
구월, 달리고 울고 들어라

조이가 한국을 떠나고 난 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우리는 함께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을 때가 종종 그리웠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홀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이런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생각이 들면 밖으로 나가 달리고, 울고, 음악을 듣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월은 자주 달리고, 울고, 음악을 들으며 보냈다.



Amotion in
Extravene.

Merde
Molasses
Gum



从：给我夜与酒的人
一宿向一

叶/水

今夜

在好与坏之间

我为你准备了好

在我吝啬和自私里

今夜

给你安全给你好

给你醒着的梦

给你牛夜的街头

醉话、黑夜汽车的大灯

不给你深夜的房门

我喜欢，但不明白的歌词：

①百计千方

②狂奔

③壳膜

④配配接接？

⑤成灰

⑥枯萎

⑦憔悴

⑧莫非

⑨景象

⑩流逝

⑪收获

✗

⑪ 闯：horse in the door
barge?

⑫ 自投罗网：^{to himself}
into the net / I asked for it.

⑬ 不声不响：If no alarms,
no surprises

⑭ 狂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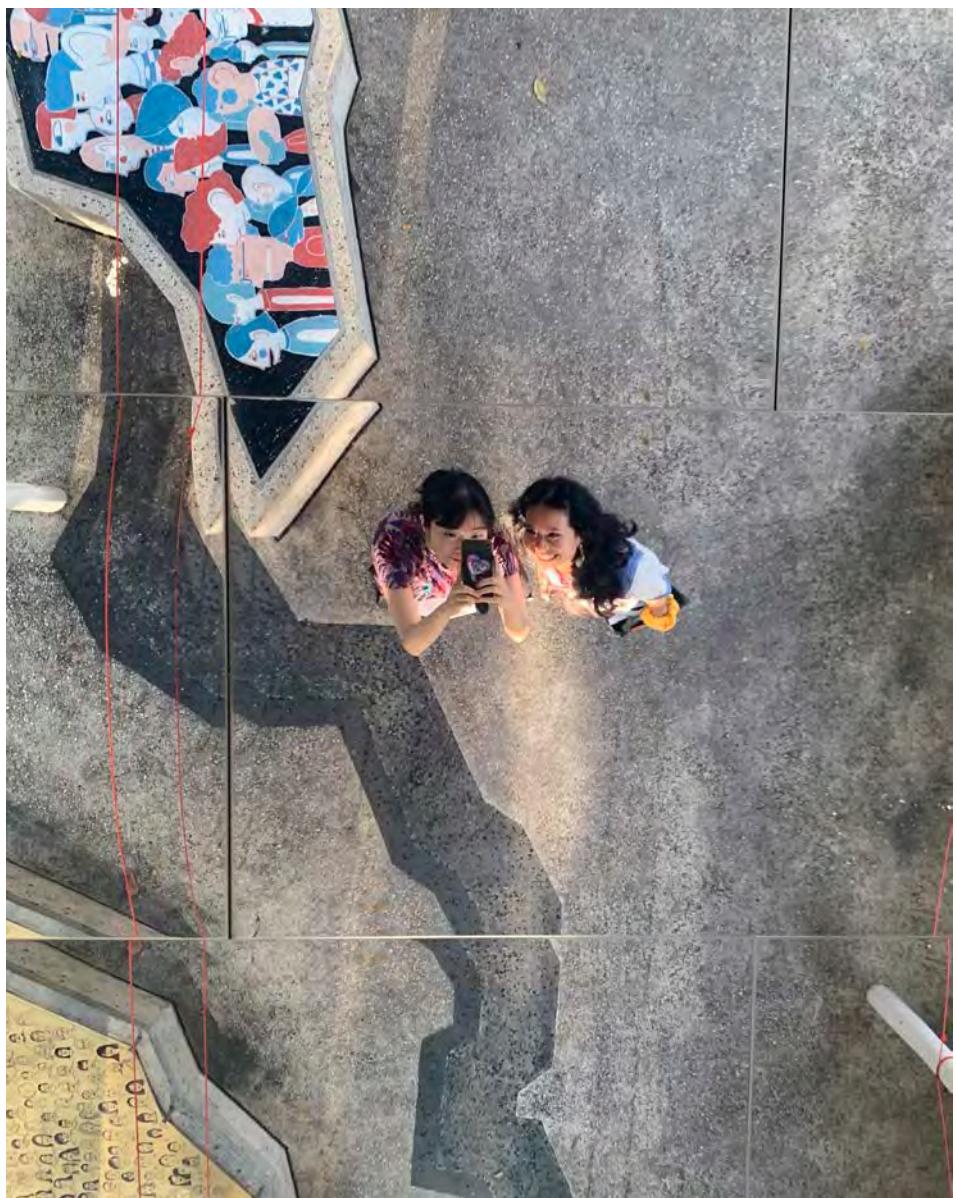
今天决定用华文写字。2003年，中学毕业后，就没什么必要或理由用文字字感觉一点也不自然。恐怕写的一点也不优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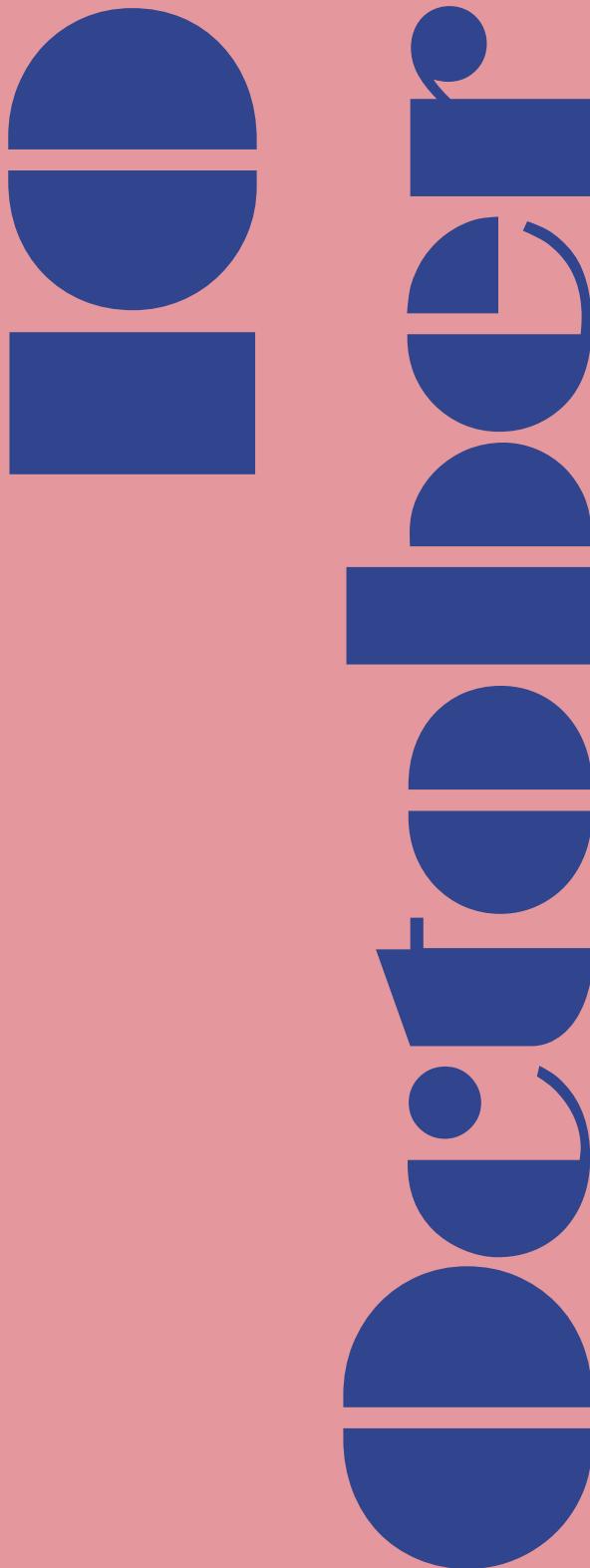
刚才和雪珠讨论我们的书。后来，她对我说，最近为了私人的问题，感到不太高兴。我对她说运动，跑步会让她感到好一点。真相刚才离晚时，我跑了5公里。又跑，又喊。一边跑，一边听她的音乐，一边哭。后来就好了。

11

她提了那本书，《Eat Pray Love》，我对她说我们应该写一本书叫《Run Crying Heart》！

24/9/22





Oct, Can we be safe?

A few days ago, I read on the BBC about the death of a young woman in Seoul, stabbed to death in the train station toilet by a man who was about to be sentenced the next day for stalking her. I remembered seeing posters outside the train station toilets warning about voyeurism while in Seoul, but this was something else al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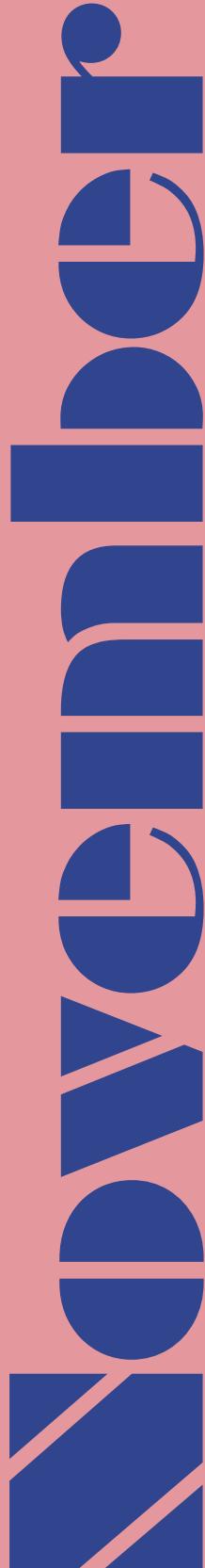
Ten years ago, while in travelling and working in India, I was terrified after hearing about a young woman who was gang-raped and beaten while on the bus. I would aim to finish dinner early in the midst of a Delhi winter, run home if I knew the sun was going to set before I got back and not set foot outside for the day once it got dark. I considered the various crimes on women from all around the world, from voyeurism to rape to murder, and wondered when it would end.

시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며칠 전, BBC에서 젊은 여성의 서울에서 스토퍼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스토퍼는 그다음 날 스토킹 범죄로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나는 서울에서 역 화장실 밖에 있던 몰래카메라 경고 포스터를 본 사실을 기억해 냈지만, 이것은 훨씬 심각한 경우였다.

십 년 전, 인도에서 일하며 여행할 당시 젊은 여성의 버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었다. 인도 델리에서 겨울을 낸을 때, 나는 가급적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곤 했고, 만약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해가 질 것 같으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들, 몰래카메라, 강간이나 살인에 대해 생각하며 도대체 언제쯤 그 끝이 올지에 대해 생각했다.





Nov. Have a new dream

Sulju's Essay

I vividly remember the moment I arrived at Changi Airport in Singapore after having six and half hour flight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South Korea. It was a blessing that we, who met online at the Asian Teaching Artist Workshop through the Public Rel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of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n 2021, could have a chance to meet in person in 2022.

During the Asian Teaching Artist Workshop and Joint Project, I often questioned myself that, "Am I really a talented teaching artist?". When I was working as a teaching artist, what I really wanted inside my mind was finding myself. When I met Singaporean people, I felt great joy that could not be compared with anything else while communicating with them.

Standing alone as an artist may look nice on the surface because it is a path different from others. However, it was a lonely and harsh path as it required a lot of endurance and patience. Perhaps that's why many artists around me decided to quit while working.

Thankfully, I met Joey who always will be with me somewhere on Earth, and now I can even try my dream of opening a new door for Asian female artists. Indeed, I think being able to write this at the end of the book also is miracle.

Above all, I am grateful for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workshop and worked hard for the solidarity of Asian women. The past 10 years of wandering around the world to find what I really want has been rewarding. And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for teaching me about the job of a teaching artist.

Joey's Essay

When Sulju and I first dreamed up this project early this year, we had not met in person yet. We first got to know each other, alongside other female artists from the region, at the Asia Teaching Artist (ASIATA) Exchange Workshop organised by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online in late 2021. What I appreciated about the programme was being able to connect with like-minded and passionate individuals.

A few months down the road, Sulju and I got back in touch to think of how art could further our conversation on feminism, rights and lives of women, something we had discussed with others last year. We felt that developing an art workshop for women would provide a valuable, creative and hands-on opportunity to learn and hear more about each other's lived experiences.

What you are reading now is a result of our joint curiosity and the artistic outcomes of women in Singapore and Korea.

In Singapore, popular points of discussion included difficult mother-daughter-in-law relationships, education for women as a way of empowerment, and fathers as allies. In Seoul, where the participants were all young women in their 20s, their concerns were mostly career and workplace related. Participants came together to share their anecdotes through excerpts that they could empathise with.

Online, in-person and outside of the workshops, Sulju and I had time to contemplate the concerns, continuities and change in the lives of women in both societies. In largely homogenous Korea, the conversation of intersectionality would differ from that of multicultural Singapore. Aesthetics are paramount in Korea, and it reflected in the care and time spent by the participants in their delicate collage details. In Singapore, participants spent more time contributing and listening to elaborate and expressive stories.

We a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KACES provided us from the beginning, sparking the collabo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Sulju and I. When we finally met in Singapore mid this year, it was as though as we had already known and worked for a long, long time.

Working towards this publication, it has been worthwhile learning more about the urgencies, lives, and stories of women in Singapore and Korea. Together, we hope for more discussions, efforts and measures on bridging gaps and advancement opportunities for women in both societies through the arts.

십일월,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설주의 에세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섯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해 가슴이 두근거렸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홍보 국제협력 팀을 통해 아시아 티칭 아티스트 워크숍에서 온라인으로 만났던 우리가 2022년 직접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른다.

2022년 아시아 티칭 아티스트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정말로 티칭 아티스트에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종종 던져본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티칭 아티스트라는 일을 할 때 가장 진짜 내면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며 가장 나다워지는 것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나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기분은 정말이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예술가로 서 있는 일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에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요하기에 외롭고 혹독한 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의 많은 예술가가 일하다가 그만두고 곁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 외로운 싸움에서 언제든지 지구 어딘가에서 함께할 친구인 조이를 만나 이제 아시아 여성 예술가들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꿈까지 열 수 있게 되었다. 정말이지 이제 책을 마무리하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워크숍에 참여해주며 아시아 여성의 연대에 대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시간을 내어준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 지난 10년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며 방황하던 지난 시간의 보상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나에게 티칭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알려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조이의 에세이

올해 초 설주와 내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서로 직접 만나기 전이었다. 우리는 2021년 말에 한국 문화 예술교육 진흥원에서 주관한 ASIATA(Asia Teaching Artist) 온라인 교환 워크샵에서 처음 만났고, 지역의 다른 여성 예술가들과 함께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는 부분은,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열정적인 개인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몇 달 후,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술을 통해 우리가 작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눴던 주제인 페미니즘과 인권, 여성의 삶에 대한 대화를 확장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기 위해 설주와 다시 연락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성을 위한 워크샵을 여는 것이 서로의 삶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하고 참의적이며 실제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결합된 호기심,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 여성의 예술적 결과물이 합쳐진 모습이다.

싱가폴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 고부 갈등, 여성 강화를 위한 여성 교육 문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전부 젊은 20대 여성이었던 서울의 경우, 그들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자신의 커리어와 직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일화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찾아 나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그리고 워크샵 밖에서 설주와 나는 서로의 사회의 여성의 삶에 대한 우려와 변화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동일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교차성에 대한 대화는 다문화 국가인 싱가폴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이 콜라주의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더 정교하고 표현력 있게 하기 위해 서로 기여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을 사용했었다.

설주와 나의 공동작업과 우정을 가능하게 해준, 그리고 처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올해 중순에 싱가포르에서 설주와 직접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일했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한국과 싱가포르 여성들의 시급한 어려움과 삶,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두 사회의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논의와 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발전 기회가 예술을 통해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TEXT	Sulju Kim, Joey Chin
PHOTOS	Sulju Kim
DESIGN	Sulju Kim, Sejin Moon
TRANSLATION	Sulju Kim
SUPPORT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글	김설주, 조이친
사진	김설주
디자인	김설주, 문세진
번역	김설주, 황찬규
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흔하지 않은 여성들